

임실치즈산업 한 단계 도약

‘살고 싶은 남원 잘사는 농촌’

제1차 실무추진위원회 개최, 육성사업 전담

사단법인 임실엔치즈클러스터가 치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임실엔치즈클러스터는 24일 임실치즈메카파크 지정현황에서 심민 이사장과 관내 유가공업체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제1차 실무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실무추진위원회는 임실군의 치즈 산업을 이끌고 있는 (사)임실엔치즈클러스터 사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성되었다.

클러스터 사업 참여 주체 간 협력과



단위 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무협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공유와 2022년도 세부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에

서 방문하여 임실군 관내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스마트 HACCP 제도에 대한 교육을 통해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회의로 진행되었다.

한편, (사)임실엔치즈클러스터는 2018년 4월 설립되어 전라북도 동부권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임실치즈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임실군 14개 유가공업체에서 생산하는 치즈와 요구르트 등 유제품 유통으로 지난해 45억원의 매출 실적을 달성하였다.

농가에서 생산한 유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고속도로휴게소 판매장과 치즈 카페 등 6개의 직영판매장을 운영하여 임실치즈 전문 유통조직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청년단체 NOWWON 창업공간 개소

각 공간별 본격적 사업 시작

남원시가 최근 청년단체 NOWWON의 창업공간을 개소함에 따라 빨간벽돌 인근에 조성된 도시재생커먼스페이스에서 청년들이 각 공간별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NOWWON은 남원시 도시재생 빌드업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된 청년들의 모임으로, 앞서 시는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까지 흑돼지 먹자골목 일대의 노후 건축물들을 리모델링했다.

최근에 문을 연 청년문화창업공간은 총 4곳으로, 이곳은 남원시 도시재생 빌드업 프로젝트를 발굴된 청년들을 상대로 2년 동안 운영될 예정이다.

(주)도강씨네마테르는 씨네라이브러리 로 영화도 보고 영화관련 서적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원시가 최근 청년단체 NOWWON의 창업공간을 개소함에 따라 빨간벽돌 인근에 조성된 도시재생커먼스페이스에서 청년들이 각 공간별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영화 상영은 매주 금, 토 일요일에 상영하고 평일에는 공간 대여 및 서적판매가 이루어지는 문화공간이다.

추남이네 소품샵은 '춘향이'에서 모

티브를 얻은 굿즈와 데코소품, 공방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하고 성인 취미 미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지산~안정선 도로 확·포장 준공

순창군이 24일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군도 19호선 지산~안정선 3공구 도로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황승주 순창군수를 비롯해 순창군의회 신용근 의장 전라북도의회 최영일 부의장, 순창군의회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준공식은 내빈소개와 경과보고, 기념사, 테이프 컷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본 공사의 추진 배경으로는 1995

년부터 군도19호선 총 14.7km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양여금 사업비 지원받아 추진하던 중 양여금 지원 제도 폐지로 일부 구간만 개통한 채 2004년 사업이 보류되는 위기를 겪었으나 2016년 특별교부세 등 10억 원을 확보하며 개발 사업이 재개된 바 있다.

지산~안정선 3공구 도로 확포장은 2017년까지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마무리 짓고 같은 해 본격 공사에 착공

해 2021년 12월 준공하고 이날 준공식을 갖게 됐다.

총 70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6년 준공된 지산~안정선 2공구(인계 용암~구립 봉안)에 이어 총 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하여 개설한 지산~안정선 3공구는 구립면 봉안마을에서 안정리까지 폭 9m, 길이 3.06km 도로를 확보했다. 이전에는 구립 봉안에서 안정리를 가기 위해서 구립면 소재지를 우회하거나 위험한 비포장 고갯길을 넘어 가야 하는 등 주민이 불편함을 겪고 사고위험에도 노출된 상태였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구축 총력

남원시가 올해 19개 사업에 45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남원시는 먼저 올해 유기질비료 지원에 28억8,0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9억원, 친환경 농자재 등 친환경농산물생산기반 조성에 7억9,000만원을 투입,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자격을 갖춘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7,259농가에 192만2,000포(20kg/포)의 유기질비료 3종과 가축분퇴비를 영농적기에 공급을 완료했다.

또한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존하기 위해 공급지역인 수지, 송동, 주생, 금지, 대강, 노암, 금동, 왕정동 8개 면·동 대표들과 토양개량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급시기와 살포방법을 결정해 석회 1,064톤과 패

화석 644톤을 3월 공급 완료했으며, 규산질 3,596톤은 방치되는 물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 공급실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에 1억1천만원, 우수농산물(GAP)확대 및 유기농업육성에 3억 3천만원, 또한 전국 소비자 확보를 위한 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에 1억 8천만원 사업비를 투입하고, 현재 친환경농법에 필요한 미생물이나 유기농업자재와 관내 퇴비공장 악취방지를 위해 악취저감 시설 지원 및 친환경 단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농기계 지원사업 등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시책사업도 추진하여 친환경 농업 선두 남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양재우 원예산업과장은 "다양한 품목의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육성과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살고 싶은 남원'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 데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12~17세 청소년 3차접종 실시

순창군이 14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청소년(12~17세) 3차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청소년 확진자 급증으로 기초접종 후 시간이 지난 12~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추진한다는 정부 발표에 따른 조치다.

대상은 12~17세(2005.11 ~ 2010.12.31 출생자) 중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난 청소년으로, 특히 고위험군(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청소년은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면역저하지는 입원·치료 등 담당 의사 또는 위탁의료기관 의사와 상의 후 2개월로 단축 접종이 가능하고, 백신은 기본접종과 같은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한다.

접종 방법은 온라인(ncvr.kdca.go.kr)에서 본인 및 대리 예약 또는 순창군 보건의료원 예방접종실로 전화예약(1339, 650-5994) 후 접종하거나 당일 접종도 가능하다.

접종의 안전성 및 이상 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여 접종하고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등 이상 반응 여부 관찰 후 귀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기본접종 미접종자, 고위험군은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권장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의회 임사회, 경제산업위원회 활동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윤기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 시정방편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일자리경제과 보고에서는 중소기업 구안인과 청년 구직난을 해결하기 위한 세부 정책에 대한 질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주문하였고, 이와 더불어 신중년 일자리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국가적 차원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적극적 대응과 함께 남원시의 선

제적 대응과 노력을 주문하고, 남원시 량상품원 비가뺑점에 대한 꾸준한 홍보를 강조했다.

농촌활력과 보고에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시 운영비에 대한 어려움이 많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탈락의 원인을 질타하고 자료 보완과 함께 세심한 공모 준비를 당부하고, 지역의 대표적 먹거리 사업인 추어시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상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임실군이 3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체납세 징수반을 편성하여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체납액의 규모에 따라 1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 공매, 2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예금조회 후 신속한 금융재산, 증권계좌 압류조치 및 추심,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사전예고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84%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38%), 자동차세(24%), 재산세(22%)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급여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각종 채권압류 및 추심, 자동차 번호판영치 등 추가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원시, 자동차 검사지역 과태료 상향 안내

남원시가 월 14일부터 자동차 관리비 및 동행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령에 따라 자동차 검사지역 과태료가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과태료에 따르면 검사지역 과태료는 경과연수가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15일 이상인 경우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된다.

또한 검사명령서 송부 이후 1년 이상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명령을 내리도록 행정처분이 강화돼 차량 소유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전국의 자동차검사소 및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에서 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자동차 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